

【논문】

##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

김성\*

### 차례

- I. 시작하며
- II.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동과 통치
- III. 만주 각 지역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
- IV. 마치며

### 국문초록

본고는 재만조선인이 특히 많았던 간도, 안동 봉천 지역의 재만조선인 스포츠 활동에 관하여 각지의 상황을 비교, 대조하였다.

재만조선인이 가장 많이 생활했던 간도에서는 반일적인 분위기가 강했으며, 스포츠 활동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조선인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운동회장에서는 제국일본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는 언동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그 때문에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재만조선인들 운동회를 감시하기도 했다.

안동은 압록강변의 도시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신의주와의 관계가 밀접했으며, 이에 따라 안동에 거주하는 재만조선인과 신의주에 거주하는(재만)조선인은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고는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을 통해 조선인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과 중국인들 또한 운동회에 참가하고 관람하며, 함께 운동회를 즐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봉천에서는 1934년 조직된 봉천 조선체육회의 주도하에 많은 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특히 봉천의 시민운동회는 주로 단오절에 개최되고는 했는데, 이 운동회는 많은 관중이 모이는 행사였다.

재만조선인 스포츠 활동은 각각의 지역마다 미묘하게 달랐다. 안동의 경우처럼 권력과 긴밀하게 연결된 조선인이 다수인 지역의 경우, 운동회

\* 샛포로 대학 교수.

는 친목 도모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간도처럼 권력에 대항하는 조선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운동회는 민족의 연대와 제국일본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행사로서 기능했다. 이처럼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만주 내 재만조선인의 분위기가 결코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차이도 1930년대, 1940년대가 통과하면서 제국의 통치 강화와 만주국의 건국, 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점차 희미해져 간다.

주제어: 재만조선인, 스포츠 활동, 운동회, 축구, 민족

---

## I. 시작하며

도미타 가즈아키(富田和明)의 저서 『두만강으로 흐르다』는, 저자가 1990년대에 중국 연변의 조선족자치주에 체류하면서 유학생할 동안 겪은 일과 보고 들은 것을 일기처럼 기록한 작품이다.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조선인이 다수 거주했던 지역으로, 이 책에는 저자의 시선으로 본 연변과 조선족들의 당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연변에서 인기가 많았던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한다.

연길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인파를 봤다.

경기장 앞에서 남은 표를 파는 사람이 있어서, 원 가치로 4원(92엔)을 주고 표를 사서 입장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4만 명을 수용하는 넓은 관객석이 거의 다 차 있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우산이나 우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응원단은 벌써 소리 높여 외치며 비에 흠뻑 젖었다.

머리에는 조선어와 한어로 '축구광'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르고, 커다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군대의 브라스밴드도 와서 조선민요 등을 연주했고, 응원단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연변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고, 친구들 얼굴도 꽤 보여서, 나도 그 무리에 끼었다. ‘축구’에 대해서라면 연변 사람들은 흥분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모양이었다.<sup>1)</sup>

이 글은 1990년대 연변의 조선족들에게 축구가 이 지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스포츠였음을 전해준다. 축구에 열광하는 군중으로 꽉 찬 경기장은 자민족 선수를 응원하고 나아가 응원을 통해 조선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1984년에 출판된 『연변조선족자치구개황(概況)』에도 “연변지구의 각종 운동 종목 중에서 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축구이다”<sup>2)</sup> 라고 쓰여 있는데, 이상의 서술은 『두만강으로 흐르다』에 등장하는 연변 지역 주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광이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축구와 같은 근대 스포츠 이외에도 조선의 전통적 신체문화인 씨름이나 그네타기, 널뛰기 등도 연중행사의 하나로 행해졌으며, 이것들도 역시 조선의 민족성을 재확인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일제시대에도 민족적인 유희나 신체문화는 다음과 같이 만주 조선인들의 민족 문화로서 실천되고 있었다.

조선인민은 축제 날에 체육경기를 하는 전통이 있다. 일제 지배 시대에 조선인민은 계급적 압박과 민족적 압박을 받았지만, 민족의 전통 축제를 이용해서 민간운동회를 열었고, 축구, 그네타기, 널뛰기, 활쏘기, 줄다리기, 육상경기 등 각종 경기를 벌였다.<sup>3)</sup>

연변 조선족의 스포츠나 민족적 유희는 1945년 이전에도 연중행사 속 문화 행사로서 실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기 조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즉, 연변 조선인들이 보여준 스포츠 분야의 실천은 조선인의 만주 이동이 만들어낸 풍경 중 하나였던 것이다.

1) 富田和明, 1993, 『豆満江に流る』, 第三書房, 163쪽.

2) 연변조선족자치구개황편집부편, 1984, 『연변조선족자치구개황』, 연변인민출판사, 190쪽.

3) 연변조선족자치구개황편집부편, 1984, 앞의 책, 189쪽.

본론에서는 만주로 이동한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조선족과 관련된 스포츠 문화의 특성을 확인하고, 당시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일단을 밝히고자 한다.

『두만강으로 흐르다』에 기록된 연변이라는 장소는, 예전에는 간도(間島)라고 불렀으며, 만주국 건국 이후인 1934년에는 만주국의 행정단위인 간도성(省)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다. 이러한 간도 지역의 스포츠에 관한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김경춘과 김영웅의 논문<sup>4)</sup>에서 언급된 내용이 유일하다. 김경춘과 김영웅은 『간도신보』에 실린 기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1920년대에서 1930년대 간도 스포츠의 실태를 밝혔다. 해당 논문은 1925년에 설립된 간도체육회의 주도하에 주최된 스포츠 행사에 관해 언급하고, 이때 개최된 경기들이 당시 영사관 경찰과 중국 측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었다는 것, 그리고 간도 지역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영향력과 조선인의 민족 스포츠 실천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김경춘과 김영웅의 논문은 해당 지역의 스포츠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귀중한 연구이지만, 1910년대 간도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만주 여타 지역의 스포츠 활동이나 재만조선인 공동체와 고국인 조선의 교류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910년대 간도의 스포츠 활동과 간도 이외 지역의 스포츠 활동에 관해 논의하고 나아가 재만조선인 스포츠 활동의 실상에 관해 그 일단을 밝혀 보고자 한다.

## II.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동과 통치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조선계 사람들은 약 180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과거 중국 동북부 지역이 만주라고 불리던 시대에 이주해 온 조선인을 그 선조로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1945년 이전에 조선에서 만주

4) 김경춘·김영웅, 2009, 「일제강점기 간도 체육 및 스포츠 변천 과정-『간도신보』의 기사분석을 중심으로(1925-1937년)」, 『체육과학연구』 20권 4호, 865-876쪽.

로 이동해 온 조선인 인구의 추이와 당시 재만조선인 통치의 실태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상의 정황에 대하여 만주에서 재만조선인이 행한 스포츠 활동의 연결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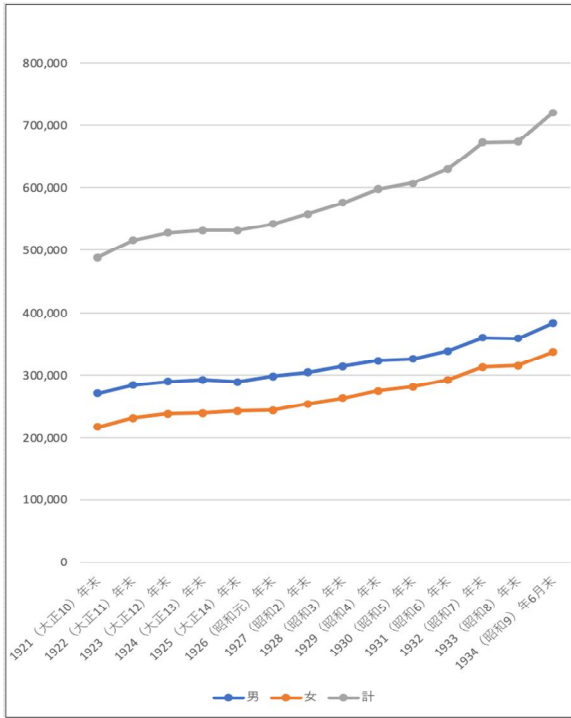
### 1. 만주로의 이주 상황

조선인은 청조와 조선왕조 말기에 만주지방으로 이동·이주하기 시작했다. 이 중 19세기 말부터 두만강 이북의 간도와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로의 이주가 계속되었고, 간도에 정착하는 조선인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성환은 이후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 인구 추이의 요인을, 1910년의 한국병합, 1919년에 일어난 3·1 독립운동,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전개된 토지조사사업, 간도 출병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sup>5)</sup> 1910년대의 한국병합과 3·1 독립운동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정치적 변동의 영향 및 자극으로 인해 조선인들의 반일사상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요인 때문에 간도로의 이주가 촉진된 것이다. 또한 1910년 3월 한국통감부의 토지조사국 설치를 계기로 조선인 농민에게 큰 영향을 준 토지조사사업이 조선총독부 통치하 공포된 토지조사령에 의해 본격화 되는데, 그 결과 일본인의 지주화가 진행되고 조선인 자작농이 감소하여 토지에서 분리된 소작농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처럼 토지를 갖지 못한 조선인 소작농의 과잉 인구가 간도로 향하게 된 것이다.<sup>6)</sup>

5) 李盛煥, 2019, 「国境を渡った「国家」—間島朝鮮社会」李盛煥·木村健二, 宮本正明編『近代朝鮮の境界を越えた人々』, 日本經濟評論社, 118-1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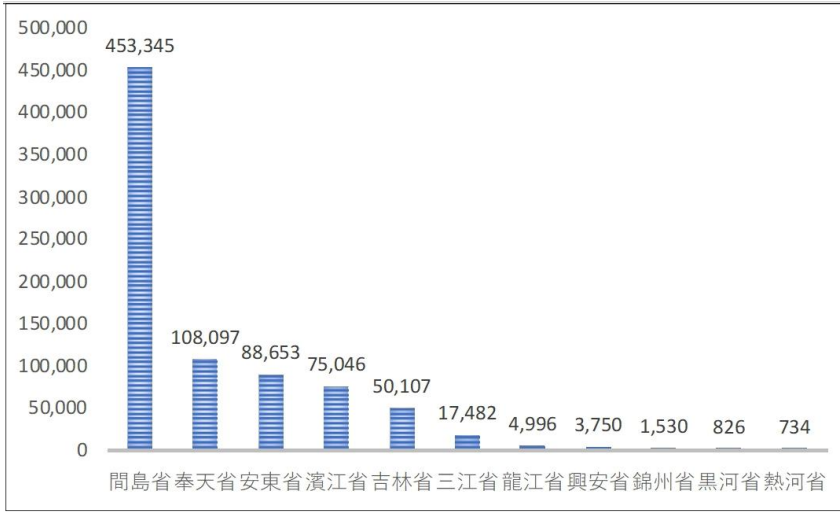
6) 李盛煥, 2019, 앞의 책, 119쪽.



[그림 1] 재만조선인 인구의 추이  
(출전: 만철(滿鐵)경제조사회편, 1936, 『만주노동사정총람』)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인 인구의 간도 유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1920년 일본의 간도 출병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간도 이주를 선택하던 조선인들은 일본의 간도 출병이 결정됨에 따라 통제가 강화된 간도로의 이주가 어려워졌고, 이것이 이주 인구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조선인들은 간도를 피해 만주의 각 지역으로 이주했고 이에 따라 만주 내 타지역의 조선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한병합후 조선인의 간도 및 만주지역 이주의 증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주자의 증가는 반일이라는 정치적 이유와 농민층의 분해라는 경제 사회적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그 후 일본의 간도 출병은 조선인의 간도 이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으로 실제 인구 동태가 어떠한가 확인해 보자. [그림 1]은 재만주 조선인 인구의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923년부터 1925년, 1932년부터 1933년 사이의 인구 증가율은 변동이 거의 없이 약간 증가했을 뿐이지만, 만주 유입 인구는 점차 증가세를 보여 1921년에 40만 8656명이었던 재만 조선인이 1934년에 들어서는 71만 9889명에 달하게 된다.



[그림 2] 만주내 재만조선인의 분포 상황  
 (출전: 재만일본대사관편, 1935, 『쇼와(昭和) 10년(1935년)도 재만조선인개황』)

그러면 이렇듯 만주로 유입된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했는가? [그림 2]는 만주내 재만조선인 인구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935년 시점에서 관동주(關東州)를 포함해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은 약 80만 명이었는데, 그중 인구 분포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조선인이 가장 많이 이주한 간도는 45만 3345명, 다음으로 봉천(奉天)은 10만 8097명, 안동(安東)은 8만 8653명, 빈강(濱江)은 7만 5046명, 길림(吉林)은 5만 107명의 재만조선인이 생활하고 있었다. 조선인의 만주 이동을 살펴보면, 간도와

7) 李盛煥, 2019, 앞의 책, 120쪽.

안동의 경우 이들 지역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의 국경지대에 있어 조선 북부에서의 이동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인접한 함경도 등에서 다수의 조선인이 이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한편 봉천으로의 이동은 1911년에 안봉선(安奉線)이 개통되고 안동과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철교가 생기면서 조선에서 만주로의 이동이 용이해졌다는 점이 이주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철교의 설치로 인해 조선의 부산에서 만주의 봉천까지 연결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길림성 조선족의 경우 그 출신지가 함경도일 때가 많으며, 흑룡강(黑龍江)성의 경우는 경상도, 요녕(遼寧)성의 경우는 평안도 출신자가 많다. 이처럼 남만주에는 조선 북부 출신자가 많고 북만주에는 조선 남부 출신자가 많은데,<sup>8)</sup> 여기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당시의 교통망 정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에 발생한 자연재해도 재만조선인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다. 하얼빈 등으로는 “간도 일대에 흔치 않은 가뭄이 든 결과, 남만주 및 간도 방면에서 중동(中東) 방면으로 피난해 이주하는 자가 갑자기 증가했”<sup>9)</sup>다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재만조선인이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농작지를 구하려고 이동해 온 만주에서 자연재해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되면서 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개별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자료는 한정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러한 여러 조건이 겹치는 가운데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동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표 1] 재만조선인 직업별 인구

(출전: 재만일본대사관편, 1936, 『쇼와11년[1936년]도 재만조선인개황』)

농업	515,025	정미업(精米業)	1,967
비종업원(非従業員)	240,130	약판매업	1,117
일용직	34,432	의사	759
그 외 직업	21,227	공사청부업	689

8) 伊藤一彦, 1992, 「日本の財滿朝鮮人政策」, 『東京女子大学比較文化研究所紀要』 53号, 68쪽.

9) 外務省亜細亞局編, 1933, 『昭和八年度在滿朝鮮人概況』, 外務省亜細亞局, 60쪽.

상업	14,052	이발업	507
무직	9,068	전당포업	463
물품판매업	8,952	사진업	415
음식점업	5,057	금융업	279
관공서 근무	4,088	대서업(代書業)	174
은행 회사원	3,951	운송업	88
요리점업	3,679	목축업	72
여행숙박업	3,300	어업	62
학교 교원	2,629		

다음으로 이렇게 만주에 정주하게 된 재만조선인들이 1930년에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고자 한다. [표 1]은 재만일본대사관이 1936년에 조사한 재만조선인의 직업별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주로 이동해 온 대다수의 조선인은 농사를 지었고, 1936년 시점에서 재만조선인 중 51만 5025명(59%)이 농업종사자였다. 농업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비종업원(非從業員)이었으며 24만 130명(27.5%) 가량 되었다. 이처럼 농업종사자와 비종업원으로 전체 재만조선인 인구의 9할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상업이나 물품판매업, 음식점을 하는 재만조선인도 일정 수 있었고, 관공서 근무나 은행원, 교원 등도 있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농업종사자 자녀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체육이나 스포츠를 경험했으리라고 추정되며, 성인의 경우에는 단오절 등의 행사 때 개최된 연중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민족 유희를 실천했으리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혹은 스포츠를 실천하지 않더라도 관중으로서 운동회나 스포츠 경기를 관전한 이들이 많았으리라고 판단된다.

## 2. 만주 재만조선인의 통치와 자치

일본 측은 만주로 건너온 조선인들을 경계하는 동시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관리했다. 당시 재만조선인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이지(明治) 38년[1905년] 일한조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관계가 일본 쪽으로 옮겨졌고, 메이지 42년[1909년, 인용 원문의 오기] 일한합병까지는 일본외교성이 전적으로 재만조선인 문제를 취급하였으며, 합병 후에는 외무성 및 조선총독부가 재만 각 영사, 관동청관(關東庁官),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 및 관동군 사령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행정 및 사회시설을 행했다.

총래 만주에 있던 일본인은 소위 4두 정치, 조선인은 5두 정치하에 있었고, 만주국 성립 이래 일본인의 통치는 주만전권대사에게로 통일되었지만, 조선인은 시설비 관계상 여전히 조선총독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sup>10)</sup>

1910년 한국병합 이전까지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외무성 소관이었다. 그러나 한국병합을 계기로 조선총독, 재만영사, 관동청관, 관동군사령부, 만철 총재 등이 재만조선인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재만조선인 대응에 관해 상호간 협의하게 되었다.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국이 성립한 이후에도 재만조선인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관여하게 되어 있었다. 이처럼 일본 측 통치기관의 상호연계를 통해 재만조선인에 대한 통치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조선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자치기관이 더해지게 된다. 만주 각지에서 결성된 인회와 민회가 그것이다.<sup>11)</sup> 인회와 민회는 “외무성 및 조선총독부 관리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한다”<sup>12)</sup>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처럼 인회와 민회는 법적 근거를 갖는 조직은 아니었지만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조선인들이 친중파로 경도되어 가는 것을 막고 나아가 재만조선인의 지위 및 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회와 민회가 ‘친일’ 조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10) 民政部總務司調査科編, 1933, 『在滿朝鮮人事情』, 民政部總務司調査科, 30-31쪽.

11) 간도의 조선인민회에 대한 연구로는 廣岡浄進, 2015, 『間島における朝鮮人民会と領事館警察—在滿朝鮮人と植民地帝国日本』, 『人文学報』 160号,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가 있다. 히로오카는 이제까지의 조선인민회 연구를 정리하면서 간도 조선인민회의 활동이 조선인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활동으로서 존재의의를 가지며, ‘자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사관 및 영사관 경찰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12) 民政部總務司調査科編, 1933, 앞의 책, 31쪽.

인회 및 민회는 1913년 11월 안동에서의 설립을 시작으로 간도 각지에 설립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 후에는 전민회의 총괄조직으로서 전만 조선인민회 연합회가 설립되었으며 “연차적인 총회 개최, 월간 회보 발행”을 행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갔다.<sup>13)</sup> 참고로 이 전만 조선인민회 연합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인물은 노구치 다나이(野口多内)라는 일본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인회와 민회에서 조선인이 각지의 회장을 맡았는데, 그 총괄 조직인 연합회 회장에 일본인이 취임했다는 것은 이들 자치조직의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구치는 이후에도 『만선일보』 발행에 관여하는 등 만주와 조선에 관련된 일을 계속했다. 1937년 5월 『매일신보』에는 조선의 내선융화 정책에 대한 노구치의 강연록이 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내선융화의 필요성과 그 근본 대책」이라는 제목의 이 강연록은 전만 조선인민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경험에 입각해 만주 체류시 재만조선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인에 대한 노구치의 시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만주 내 백만 동포에 대처하는 동시에 멀리 조선 내의 2천만 동포들을 향해 호소해 온 것입니만, 조선인 쪽에서는 이러한 저를 만만히 보고 다루기 쉬운 바보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건지, 이외로 마음을 열고 친하게 대해 주어서요, 내지인들에 대한 나쁜 말도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할 정도가 되었고, 또 조금 무리한 것이라도 제가 얘기하면 비교적 잘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인의 내면적 정절(情節)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이 또한 조선인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sup>14)</sup>

노구치에게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는 조선인에 대한 제국 일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했다. 조선인을 향한 노구치의 시선은 식민자로서의 시선이었다. 자료를 통해 그가 겉으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만적 태도

13) 南滿州鐵道株式會社經濟調査會編, 1936, 『滿州勞働事情總覽』, 南滿州鐵道株式會社, 325-332쪽.

14) 1937.05.07., 「內戰融和の必要性と其根本の對策(三)」, 『매일신보』.

로 재만조선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만조선인의 인회 및 민회와 같은 자치조직은 조선인의 생활과 관련된 기관이었기 때문에 통치를 실행하는 권력 측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만주국 협화회가 주도하게 될 때까지 이처럼 통치기관과 자치기관의 연계를 통해 재만조선인 에 대한 제국 일본의 통치가 도모되고 있었던 것이다.

### Ⅲ. 만주 각 지역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

앞장에서는 조선인의 만주 이동과 만주 내 조선인 인구 분포를 확인했다. 요컨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대다수가 간도로 이주했고 다음으로 봉천, 안동의 순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조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스포츠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된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전제로 본장에서는 간도, 안동, 봉천의 세 지역에서 이루어진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에 착목해서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 1. 간도

간도의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일부 언급되기는 하지만, 한국병합 이후인 1910년대를 배경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어떠한 스포츠 활동이 전개되었는가 대해서는 기술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이 점을 포함하여 우선 1910년대 간도의 스포츠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 절에서도 확인했듯이 조선인의 간도 이동은 청조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조선 북부에서 많이 건너갔다. 한편 한국병합 후 설치된 조선총독부 감시하에서 조선인의 반일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간도의 경우 합병 이전부터 용정(龍井)에 통감부의 임시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선인 교육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간도의 파출소에서 담당하는 상황이었다.

그즈음 조선에서는 일본의 위협에 맞서 애국 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체육과 스포츠가 민족의 결속과 민족의식 고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조선 각지에서 조직된 체육 단체는 운동회를 활발히 개최했고 이러한 운동회의 목적은 “다양한 종목을 행하는 중에 경쟁심을 높이고 민족적 자각을 촉진하며, 국가 위기에 맞설 정신과 체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sup>15)</sup>

간도에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교육제도가 성립되어 갔으며, 더불어 전통적인 교육제도인 서당교육도 병존하고 있었다. 이윽고 기독교계나 천도교계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나 조선인이 경영하는 민간 사립학교 등이 설립되면서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사립학교 등을 경영하는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망국의 위기감 속에서 반일의 기운이 공유되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스포츠에도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는 역시 운동회였다.

춘계 운동회는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 맞추어 개최되었는데, 조선 민족에게 단오절은 여러 연중행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행사로서 단오절에는 씨름이나 그네 타기를 했으며, 달오절에 개최된 여러 스포츠 행사는 조선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했다. ‘웨스턴 임팩트’ 이후 근대적 가치관과 문물이 조선에 유입되고 그와 함께 스포츠도 전파되었는데, 이때부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동회가 연중행로서 신체 문화의 위상을 지니고 열리게 되었다. 이 즈음 개최된 운동회는 관중이 3천 명을 넘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성대한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 당국에게 간도의 운동회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 까닭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인 사립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이 운동회를 계기로 민족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운동회로부터 반일에 기반한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1910년대 간도에서 당국이 운동회를 경계했다는 정황은 몇몇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13년에는 「배일(排日) 조선인학교 연합운동회에 관한 건」이라는 제

15) 西尾達雄, 2000,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学校体育政策』, 明石書店, 86쪽.

목의 보고가 제출되었다. 이것은 재간도 총영사관의 정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로서 경성의 조선총독을 비롯해 여러 곳으로 송부되었는데, 6월 9일에 개최된 대교동(大教洞) 운동회의 모습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연합운동회의 개최식에서는 대표자의 담화 후에 “대한만세 그 다음으로 중화민국만세 각 학교 만세를 각 3창 하였다”<sup>16)</sup>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 운동회 내내 조선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자세와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드러났다는 것과 일본 측이 이러한 언동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개최식에서 이동춘(李同春)이라는 인물이 담화에서 간도의 “보통학교 교육을 부진하게 만드는 일본영사관을 철폐시킬 방침을 연구하자”<sup>17)</sup>라고 발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처럼 친중반일의 성향을 드러내는 언동은 운동회에 대한 당국의 감시 강화로 이어졌다. 간도 지역 운동회는 다음 날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되었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된다.

다음 날인 10일 용정 상부국(尙埠局) 남방천원(南方川原)에서 다시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은 전날 대교동 운동회에서 학생에게 상품을 수여할 때 불공평한 점이 있어서 각 학교에 약감정을 품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시위의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바, 즉 그들의 행동은 각 학생들을 인솔해서 시내와 영사관 부근을 행진하고 여러 곳에서 한국 만세를 부른 것이었다.<sup>18)</sup>

운동회를 계기로 한국 만세를 부르면서 시내를 걷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당국의 경계심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그 때문에 당국은 차후 열리기로 예정된 운동회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번에 운동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관찰사와 교섭해서 이번 운동회와

16) 在間島總領事館政務局第一課, 1913년 7월 18일, 「排日鮮人學校連合運動會ノ件」.

17) 위와 같음.

18) 위와 같음.

같은 불온한 행동은 절대로 금지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즉시 해산시키고 이후 운동회를 여는 경우에 영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였다.<sup>19)</sup>

당국은 조선인들이 운동회를 계기로 군중을 이루어 시내를 걷는 것 자체를 일본에 대한 저항과 민족운동으로 보았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당국의 경계는 그 후에도 지속된다. 같은 해 가을에도 간도에서 운동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운동회의 경우 관찰사<sup>20)</sup>와 교섭한 뒤에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당국의 감시하에서 운동회를 열게 했으며, 봄 운동회에서 전개되었던 시위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같은 해 가을 9월에 개최된 연합운동회 당시의 서간에도 발견된다. 9월의 연합운동회 직전에 재간도 총영사관에서 외무대신 앞으로 보낸 「배일 조선인학교 운동회 취체(取締)에 관한 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올해 6월 9일에 대교동에서 열렸던 조선인학교 연합운동회에서 배일 행동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행해, 적당한 시기에 관찰사에게 기밀 제33호에 의해 주의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달 15일 즉 음력 8월 15일에 국자가(局子街) 남영(南營)에서 추계 대운동회가 개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시일이 촉박하고 또한 근래 배일 조선인들의 행동으로 보아 이번에 일단 관찰사에게 경고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sup>21)</sup>

총영사관 측은 가을에 예정되었던 운동회는 6월 봄 연합대운동회에서의 '배일 행동'을 의식하면서 관찰사에게 가을 운동회를 주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에

19) 위와 같음.

20) 1907년에 길림성이 설치되었고 그 후 길림성의 하위행정기관으로서 동남, 동북, 서남, 서북에 4개의 '로(路)'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관할하는 장관을 '도태(道台)'라 불렀다. 1913년에 '도태'를 '관찰사(觀察使)'로 개칭하였고, 1914년 6월에 '관찰사'를 다시 '도이(道伊)'로 개칭하였다. 간도는 동남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 장관의 명칭은 동남로도태, 동남로관찰사, 동남로도이로 변화했다.

21) 在間島總領事館政務局第一課, 1913.09.11., 「排日鮮人學校運動會取締ニ関スル件」.

운동회가 개최될 예정인 국자가 분관에서도 「조선인학교 추계운동회에 관한 회답의 건」이라는 제목의 답변이 송부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해 개최된 봄 운동회에서의 '배일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가을에 개최될 운동회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언하고 있다.<sup>22)</sup>

앞선 운동회의 여파는 1914년까지 계속되어 1914년 6월에 개최된 운동회를 다루는 한 신문 기사의 경우 해당 운동회를 가리켜 '배일적 운동회'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되기도 했다.

예년 음력 단오절에는 재간도 지나(支那) 관립학교 및 사립 조선인학교 연합하여 대운동회를 열고, 부모 형제 그 외 참관자가 매우 많이 모여 성황을 이루는데, 근래 이러한 종류의 운동회가 자칫하면 배일행동으로 기울어 군중을 선동하면서 시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불온한 창가를 부르며, 또 그 운동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해 공격하면서 개가를 울리고 기뻐하는 등 그 행동이 점점 불온해지고 있다.<sup>23)</sup>

이 신문기사에서도 역시 전년도에 운동회에 대한 경계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용정촌 부근에서 개최된 운동회는 일단의 학생대가 일부러 멀리 돌아 우리 총영사관을 한 바퀴 돌아서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고”<sup>24)</sup>라고 기술하면서 1913년의 운동회 후 시내에서 전개된 행진을 불온한 움직임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봄 운동회는 전년의 위와 같은 움직임에 대한 경계 속에서 개최된 것이었다. 이상의 맥락 속에서 개최된 운동회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관찰사의 감시와 통제는 엄격했다. 이렇듯 재만조선인 운동회는 대체로 당국의 단속과 경계 속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재간도 총영사관의 「간도 국자가 지방 조선인학교 학생 운동회에 관한 건」<sup>25)</sup>이라는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22) 위와 같음.

23) 1914.06.09., 「排日的運動會」, 『滿日』.

24) 위와 같음.

25) 在間島總領事館政務局第一課, 1914.06.16., 「間島局子街地方鮮人學校生徒運動會ニ関スル件」.

데, 해당 보고서에는 운동회에 참여한 재만조선인들이 보인 당국에 대한 불온한 상황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해에 개최된 운동회에 대한 경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운동회 상황을 전하는 몇 가지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관내 조선인이 설립에 관여한 각 학교는 모두 배일적 사상을 고취하고 언제나 일인의 참관은 거절하고 있는 형국인데, 아직 그 결과가 주의를 요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금번 운동회에서는 유기(遊技) 그 외에 특별히 배일을 의미하는 일은 없었다”<sup>26)</sup>라고 기술되어 있어, 당국이 재만조선인이 개최하는 운동회에서 반일적인 언동이 있는지 없는지가 당국에 의해 관찰 및 분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간도의 사립학교가 반일, 배일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 운동회와 같이 노골적인 ‘배일행동’이 보인 것은 아니어서 운동회를 중지시킬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운동회에 대한 당국의 경계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간도의 운동회는 1917년에는 6천 명 내지 7천 명의 관중을 모을 정도의 규모였고, 지역의 성대한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잡고 있었다.<sup>27)</sup> 당국은 여기에 참가하는 사립학교를 비롯해 경기 종목, 개회식과 폐회식의 강연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운동회 내내 상황을 분석하고 감시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1918년에 간도에서 개최된 운동회에 대해서는 “운동회장에서는 각별한 배일 불온의 언동 등이 없어도 다수가 집합한 결과 정신상으로 일종의 흥분 상태가 있음이 인정된다”<sup>28)</sup>고 기술되어 있는데, 배일적인 기미가 없더라도 당국이 운동회로 인한 일체감의 조성 and 흥분 상태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10년대 간도의 운동회는 간도의 조선민족에게는 일본에 대한 저항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벤트였다. 그뿐만 아니라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던 운동회는 조선민족으로서의 결속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이

26) 在局子街領事分館, 1914.06.06., 「鮮人學校運動會ノ模様ニ干スル件」.

27) 在問島總領事館政務局第一課, 1917.07.10., 「朝鮮人經營私立學校連合運動會ノ件」.

28) 在問島總領事館政務局第一課, 1918.07.08., 「問島鮮人經營支那官許私立學校連合運動會開催ノ件」.

기도 했다. 그 때문에 당국은 운동회를 빌미로 많은 조선인이 모이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1921년에 간도내 18개 장소에 조선인민회가 배치되는 등 1920년대에 이르러 당국에 의한 민족운동 억제가 기획되는 가운데 1925년 10월에는 체육과 스포츠를 통제하는 단체인 간도체육회가 조직된다. 간도체육회는 같은 해 6월 간도체육기성회 조직을 시작으로 그 준비 태세를 갖췄고, 설립 이후에는 간도 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간도내 스포츠 경기대회 개최와 운영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도체육회는 축구, 육상경기, 씨름, 그네타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회 등을 주최했으며, 특히 단오절에 그러한 경기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간도체육회에서 주최한 경기 및 대회는 외무성의 영사관경찰서와 중국 측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운동회에 대한 당국의 경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포츠 경기 및 대회를 계기로 재만조선인들이 민족의식을 각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국의 과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각종 경기 및 대회를 일본 영사관경찰 통제하에 개최하게끔 했던 것이다.<sup>30)</sup>

간도에서 재만조선인들이 가장 흥미를 가졌던 스포츠는 축구인데, 191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간도의 축구는 사립학교인 명동(明東) 학교와 창동(彰東) 학교의 봄 가을 교류전에서 그 맹아를 찾을 수 있다.<sup>31)</sup> 그리고 1923년에 전간도 축구대회가 열리게 된다. 1924년에 개최된 제2회 대회 기사를 보면, 이 대회가 시작될 당시 조선일보사 간도지국과 용정청년회, 조선인민회의 후원으로 축구대회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제2회 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28개이며, 경기진행 방식은 중학단, 소학단, 청년단이 각각 세 개 리그로 나누어 시합을 한 뒤, 각 리그의 우승팀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간도의 축구대회는 봄 단오절 시기에 열리는 대회와 가을에 열리는 대회가 있었던 듯하다.

29) 김경춘·김영용, 2009, 앞의 논문, 87쪽.

30) 위와 같음.

31) 김청운, 2019, 『연변축구 100년사』, 연변인민출판사, 21쪽.

32) 1924.05.29., 「전간도의 축구대회」, 『시대일보』.

이 대회와 1924년 중학부 대회에서는 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동흥(東興) 중학과 은진(恩眞) 중학의 시합 도중 심판의 판결이 불공평하다며 동흥 중학의 선수가 심판을 때려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sup>33)</sup> 이 폭행사건은 큰 문제가 되었고, 동흥중학에게는 5년간 대회참가를 금지하는 등 엄한 조치가 내려졌다. 사료에서는 사건 후 경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동흥중학은 1926년 5월부터 고국방문 축구단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조선으로 축구원정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정은 “1. 평양 2. 안주 3. 정주 4. 선천 5. 철산 6. 신의주 및 안동현 7. 경성 8. 원산 9. 함흥 10. 북청 11. 성진”<sup>34)</sup> 순으로 이동했고, 원정 기간이 한 달이나 되는 일정이었다.



[그림 3] 동흥중학의 고국방문 축구단(출전: 1926.06.14., 『동아일보』)

이처럼 조선 각지에서 이루어진 원정 시합의 경우, 각 도시마다 만주에서 온 동포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그 결과가 조선의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예를 들면 1926년 7월 7일 『동아일보』는 신의주로 원정 온 동흥중학에

33) 1924.05.29., 「동흥중학생 실태로 간도축구회 파열」, 『동아일보』.

34) 1926.06.11., 「간도청년으로 조직된 고국방문축구단」, 『동아일보』.

대해 “간도 동흥중학교 축구 원정단은 지난 1일에 선천을 떠나 신의주로 왔는데, 오랜 기간의 여행과 경기로 선수 다수가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곤한 몸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에 신만군(新灣軍)과 친목 시합을 그 곳 고등보통 학교 그라운드에서 벌인 결과, 7대1로 동흥군이 쾌승을 거두었다”고 보도하고 있다.<sup>35)</sup> 7월 12일 『시대일보』는 경성 휘문의 그라운드에서 열린 조선축구단과의 대전을 “조선축구단 상대로 간도 동흥군 선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시합은 2대2 무승부였다.<sup>36)</sup>

동흥중학 고국방문 축구단 원정은 조선의 신문사 등이 후원했고, 각지의 조선인 체육조직이나 조선체육회가 주최자로서 교류시합에 관여했다. 축구 시합 후에는 선수들과 인솔자에 대한 환영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계기로 간도와 조선의 지식인간의 교류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간도의 축구는 이후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1936년 6월에는 조선중앙일보사 주최로 전간도 학생 축구전이 개최되었는데, 대회에는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인 여운형이 참석했다.<sup>37)</sup> 이를 통해 조선중앙일보사가 많은 동포들이 생활하는 간도 지역의 청소년 축구대회를 진흥시킴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한 정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대회 중학부에서 우승한 팀은 앞서 언급한 동흥중학이었다. 동흥중학은 같은 해 9월에 친선시합을 위해 다시 경성에 방문하기도 했다. 『연변축구 100년사』에는 “방문기간 동안 그들은 몇 번이나 경기를 했으며, 9월 22일에는 연희전문에 3대4로 졌고, 24일에는 배재중학에 2대3으로 졌고, 25일에는 경신중학에 0대1로 졌다”고 기술되어 있다.<sup>38)</sup>

1934년에는 만주에서 전만 도시대항 축구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신경(新京), 대련(大連), 안동, 봉천, 길림, 간도, 하얼빈, 치치하루 등에서 대표팀이 참가했다. 이

35) 1926.07.07., 「동흥군의 승리」, 『동아일보』.

36) 1926.07.12., 「조선축구단 상대의 간도동흥군 선전」, 『시대일보』.

37) 1936.06.06., 「용정 벌에 전개될 전간도 학생 축구전」, 『조선중앙일보』.

38) 김청운, 2019, 앞의 책, 41쪽.

중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팀은 간도대표팀이 유일했다고 한다. 이 전만 도시대항 축구대회의 제2회 대회에서 간도대표팀은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결승전에서 신경대표팀을 3대0으로 누름으로써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sup>39)</sup> 간도팀의 강세는 이 대회에 그치지 않았다. 이어진 제3회, 제4회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대회 3연패를 이루어냈다.<sup>40)</sup> 간도 축구의 실력은 1942년에 신경에서 열린 건국10주년 경축 동아경기대회에 출전한 대표선수 중 6명의 선수가 간도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41)</sup>

이처럼 현재에도 연변에서 가장 성황인 축구는 재만조선인들의 고향인 조선과 연결된 스포츠라는 점과 더불어 높은 경기력의 영향으로 간도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안동

안동은 압록강변의 도시이며 만주와 조선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조선의 신의주인데,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안동은 신의주와 연계해서 함께 발전해 왔다. 안동과 신의주의 경우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인들이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안동은 조선과 인접한 도시였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도 압록강을 건너 이주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앞에서 언급한 1922년의 압록강 철교 설치로 인해 두 도시간 이동이 편해지면서 신의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안동의 학교에 다니거나 안동의 상점에 근무하기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안동에는 만주내에서도 가장 빠른 시기에 인회·민회가 설치되었다. 안동의 조선인회는 1913년 11월에 조직되었으며, “영사관의 보조기관으로서 안동, 관전(寬甸), 집안(輯安), 임강(臨江), 장백(長白), 봉성(鳳城), 수암(岫巖), 장하(莊河)의 8개 현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관내 일반이주 조선인의 생활향상 및 사상선도를 목적으로 다이쇼(大正) 2년[1913년] 11월에 설립”<sup>42)</sup>되었다고 한

39) 1935.07.06., 「간도조선인팀 전만축구에 우승」, 『동아일보』.

40) 1937.08.26., 「전만도시축구에 간도팀 3년 연패」, 『동아일보』.

41) 1942.08.04., 「전만축구대표 간도성서 6명」, 『매일신보』.

다. 기록을 통해 당시에 김창(金昶)이라는 인물이 조선인회 간사를 맡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43)</sup> 이 인물은 이후 1935년에 조직된 안동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인물이다.<sup>44)</sup>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동과 신의주에서의 조선인 스포츠 활동은 간도와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다.<sup>45)</sup>

1910년대 안동에서는 만철운동회가 주최한 운동회가 개최된다. 안동에는 만철운동회 안동지부가 있었는데, 이 만철운동회 안동지부 주최로 1912년 5월 단오절 때에 춘계 대운동회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철운동회 안동현지부의 춘계 육상운동회는 단오절을 맞아 5일 오전 9시부터 안동역 북방인 진강산(鎭江山) 기슭의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무엇보다도 만철 측에서 주최한 까닭에 설비가 빈틈없이 갖춰져 있어 일인, 청인, 조선인 등 무려 수천 명의 참가자가 모여 마음껏 즐겼고 종일 박수갈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sup>46)</sup>

이처럼 운동회에는 수천 명의 관중이 모였으며 관중 중에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세 민족이 섞여 있었다.

1913년 4월에도 만철 춘계 대운동회가 개최되었고 그로부터 몇 주 후인 5월 11일에는 안동시민 대운동회도 열렸다.<sup>47)</sup> 이 시민 운동회를 주최한 것은 안동신보사였다. 안동시민 대운동회는 오전 9시부터 만철그라운드에서 개최되었는데, 관람자는 “일인 지나인 합쳐서 6천 명”<sup>48)</sup>이었다고 한다. 시민운동회는 만철운동회와 더불어 봄에 개최되었으며, 만철직원뿐 아니라 안동에서 상업을 하는 자들

42) 外務省亞細亞局編, 1933, 앞의 책, 903쪽.

43) 外務省亞細亞局編, 1933, 앞의 책, 906쪽.

44) 1935.09.13., 「안동 조선인체육회 창립」, 『매일신보』.

45)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안동과 신의주의 스포츠에 대해서는 金誠, 2020, 「帝國日本と国境のスポーツ史—安東・新義州のスポーツ交流と鴨緑江のスケート」, 『史潮』 88号, 歴史学会를 참조.

46) 1912.05.08., 「安東滿鉄運動會」, 『滿日』.

47) 1913.05.14., 「安東大運動會 警務署員の全勝」, 『滿日』.

48) 위와 같음.

이나 공무원 등 참가 대상을 안동시민까지 넓혀서 개최되고 있었다. 시민운동회에 참가한 조선인에 대한 기술은 자전거 경주에 대한 다음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띠는 것은 250야드 30주 경주에서 요코하마도(橫濱堂) 점원인 조선인 아amoto 센키치(山本淺吉, 19세)라는 자가 도중에 전속력을 내서 무리를 따돌리고 결국 27바퀴 째에서 선두가 되어 보라색 견직물로 된 우승 깃발을 얻은 것이다.<sup>49)</sup>

“조선인 아amoto 센키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 상점에 근무하는 조선인이 일본 이름을 써서 운동회에 참가했으리라는 정확을 포착할 수 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기사가 발표된 당시는 식민지 조선에서 소위 창씨개명이 진행된 시기가 아니므로, 해당 인물은 안동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혹은 일본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일본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대운동회는 매년 개최되었으며, 1913년 10월부터는 추계 만철운동회도 열리게 되었다. 1914년 10월에 개최된 만철 추계 대운동회에 관한 서술 중에는 “주도윤(朱道尹) 전련채공(錢練採公) 이사장, 마용담(馬龍潭) 장군 등 지나 쪽의 명사들이 내빈석을 빛냈다”<sup>50)</sup>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쪽 임원들도 운동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학교를 중심으로 열린 운동회도 흥미롭다. 1911년 5월에는 안동과 신의주의 소학교가 합동으로 안의학아(安義學兒) 운동회를 개최하여 안동과 신의주의 소학생들이 안동소학교에 모여 운동회를 가졌다. 1916년 10월 안동소학교 10주년 기념 운동회가 열릴 당시에는 안동소학교의 아동뿐 아니라 신의주의 소학교, 보통학교 아동들도 해당 운동회에 참가했고, 중국인 학교의 학생들도 참가해 춤을 공연했다.<sup>51)</sup> 소학교 운동회를 통해 일본인 아동, 조선인 아동, 중국인 아동 간의 교류가

49) 위와 같음.

50) 1914.10.07., 「安東大運動會」, 『滿日』.

이루어졌던 것이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 만철 춘계 운동회의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관중도 한층 더 늘어 1922년에는 만 5천 명,<sup>52)</sup> 1924년에는 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여들었다고 한다.<sup>53)</sup> 이처럼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들이 참가하고 관람 안동 운동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러한 운동회가 다민족의 친목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안동과 신의주 사이의 스포츠 교류도 활발해졌다. 예를 들면 1925년 6월에 개최된 안의대항 육상경기대회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신의주군(軍)은 작년 대항 때 참패해서 이번에는 설욕전을 치르겠다고 필사적인 전투를 펼친 결과 마지막 우승은 103대 58로 신의주군이 차지하였는데, 안동군은 전부 일본인으로 조직되어 있었지만 신의주군은 일본인 조선인이 각각 반 정도였고 신의주군은 박기평(朴基平), 이민근(李敏根), 두 선수 덕에 승리의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다.<sup>54)</sup>

이때 안동의 선수는 전원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안동 쪽에는 재만조선인이 없었지만 신의주 쪽 선수는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박기평, 이민근이라는 조선인 선수들이 활약했다는 사실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1928년 5월에 안동에서 개최된 만철 육상운동회의 마라톤 경기에도 조선인 선수들이 참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1위에 이성근(李成根), 2위에 김성환(金盛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만철사원 중 재만조선인 사원이 있어서 스포츠 경기대회나 운동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55)</sup>

51) 1916.10.04., 「小学記念運動會」, 『滿日』.

52) 1922.04.25., 「優勝は今年も馭軍」, 『滿日』.

53) 1924.04.29., 「鴨綠江畔に開かれた春の運動競技會」, 『滿日』.

54) 1925.06.26., 「안의육상경기」, 『시대일보』.

55) 1928.05.23., 「赤組に栄冠輝く滿鉄陸上運動會賑ふ」, 『滿日』.

안동에서는 겨울 스포츠도 주목을 받았다. 겨울이면 안동과 신의주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이 얼어붙어 천연 스케이트 링크장이 만들어졌고, 20세기 초부터는 얼어붙은 겨울의 압록강 위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게 된 것이다. 압록강에 스케이트가 처음 등장한 것은 러일전쟁 후인 1906년의 일이며,<sup>56)</sup> 이후 결빙기의 스케이트는 안동과 신의주의 시민들에게 겨울의 풍물로 자리잡았다.



[그림 4] 압록강에서 열린 스케이트대회의 모습 (출전: 필자 소장)

1909년 2월 23일자 『도쿄아사히신문』은 “오늘 청량한 날씨 속에 압록강에서 빙상경기가 있었고, 일인, 청인 및 한인들 수천 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sup>57)</sup>고 보도하는데, 이 같은 서술로 미루어 볼 때 압록강에서 열린 스케이트 경기를 보기 위해 안동과 신의주에서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록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안동의 소학교와 안동 공회당에 스케이트 링크가 조성되었다. 이처럼 소학교 내에 아이스 링크를 설치한 사실은 안동 지역 소학교에서 스케이트를 많이 즐겼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56) 압록강의 스케이트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이시카와 요노스케(石川用之助)와 일본 이와테현(岩手県) 출신인 지바 시게루(千葉茂)라는 인물에 의해 시작되었다.

57) 1909.02.23., 「鴨綠江水上競技」, 『東京朝日新聞』.

가 된다.

『만주교육사』는 안동의 대화(大和)소학교에 대해서 “전만 학동 스케이트 대회에서 항상 발군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학교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스케이트 경기대회에서는 제1회부터 7번이나 우승을 했,” 기타니(木谷), 이시하라(石原), 이성덕(李聖德) 등을 비롯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하며, 단연코 스케이트계에 군림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sup>58)</sup> 여기에 기록된 이성덕은 신의주 출신으로, 안동에서 소학교를 다닌 후 고등학교는 신의주고등학교로 진학한 조선인 선수이다. 이성덕은 신의주고등학교 시절 스케이트 선수로서 좋은 기록을 내기 시작해 1930년에 개최된 제4회 전조선 빙상경기 대회에서는 천 미터에서 3위, 5천 미터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만 미터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일본인 선수들도 출전한 조선체육협회 주최의 제6회 전조선 빙상경기대회에서도 2천미터와 만 미터 모두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제국 일본의 스케이트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sup>59)</sup> 1931년 1월에 개최된 제7회 전조선 빙상경기대회 예선에서는 천 5백 미터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당시 소속이 ‘부청(府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의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신의주부청에 근무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sup>60)</sup> 제7회 전조선 빙상경기대회에서 이성덕은 만 미터 부문 우승을 차지했고, 고교졸업 후 경기 성적은 날로 좋아졌다.<sup>61)</sup>

다음 해에 가미스와(上諏訪)에서 개최된 제3회 전일본 스케이트 선수권대회에서는 5백 미터에서 이성덕이 우승을 하였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무명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해 관중에게 큰 갈채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sup>62)</sup> 이성덕은 같은 대회의 5천 미터 경기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 또한 다음 해인 1933년 제4회 전일본 빙상선수권에서는 5백 미터와 5천 미터에서 각각 우승했고, 천 미터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등이 해 선수권대회를 제패했다.<sup>63)</sup> 그리고서 1934년에

58) 嶋田道彌, 1935, 『滿州教育史』, 文教社, 359쪽.

59) 1930.01.28., 「大会記録すべて突破 漢江々上の大白熱戦」, 『朝鮮新聞』.

60) 1931.01.18., 「スケート大会 選手予選記録会」, 『朝鮮新聞』.

61) 1931.01.20., 「平北王倒の勝利」, 『朝鮮新聞』.

62) 1932.01.27., 「빙상오백미 결승에 이성덕군 일착」, 『동아일보』.

는 와세다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듬해에는 대표 선발을 거쳐 1936년 2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에 일본 대표선수로 참가했다. 참고로 이때 일본 대표선수에는 조선인 김정연(金正淵)과 장우식(張祐植)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동에서는 그 외에도 단오절 시즌에 씨름이나 그네타기 대회가 개최되었다.<sup>64)</sup> 아울러 신의주 팀을 상대로 한 국경축구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으며, 1935년에는 안동체육회가 창립되면서 국경농구대회를 주최하는 등<sup>65)</sup> 신의주 조선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동과 신의주 간 교류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 3. 봉천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인들은 봉천으로도 이동했지만, 간도나 안동이 국경 지역으로 비교적 이동하기 쉬운 지역이었던 것과 달리, 봉천은 안동, 길림, 금주(錦州), 관동주 등으로 둘러싸인 내륙지역인 까닭에 조선에서 간도나 안동으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 이동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아니었다. 조선인들의 봉천으로의 근대적 이주에 대해서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특히 안봉선이 개통됨에 따라 조선의 교통이 편리해진 데 더해 일한병합에 대한 불평분자와 합병 후 환경의 격변으로 인한 생존경쟁에서 패한 자들이 국외로 도피하게 되어 이 지방의 이주자도 함께 급증”<sup>66)</sup>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식민지 지배와 안봉선의 정비로 인해 이동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이 두 지역간 이동이 활성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밖에 봉천지역으로의 조선인 이주가 활발해진 또 다른 원인으로는 동아련업공사의 성립으로 조선인 소작인의 수요가 높아지고, 무순(撫順)에서 수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내지는 광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63) 1933.02.01., 「전일본의 속주빙상선수권을 이상덕선수가 획득」, 『동아일보』.

64) 1925.05.15., 「각회와 추천대회」, 『시대일보』.

65) 1935.10.22., 「국경농구대회」, 『매일신보』.

66) 外務省亞細亞局編, 1933, 앞의 책, 23쪽.

수요가 높아진 것을 거론할 수 있다.<sup>67)</sup> 이와 더불어 간도 출병 이래로 1920년대 조선인의 간도 이주가 줄어들면서 봉천이나 길림 방면으로의 이동을 선택하는 조선인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봉천으로 이동한 재만조선인들은 1921년 재봉천 조선청년회를 조직했고, 1920년대에는 이 청년회를 주축로 하여 단오절에 운동회가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sup>68)</sup> 그 후 1930년대에 들어서는 1934년 10월에 봉천 조선체육회가 조직되었고<sup>69)</sup> 재만조선인을 위한 스포츠 활동은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봉천 조선체육회는 그때까지 개최되어 오던 시민운동회를 주최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전만주 씨름 선수권 대회도 개최했다. 운동회 대회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운동회의 “상점(商店) 대항 경기 종목”으로는 백 미터, 4백 미터, 천 5백 미터, 멀리뛰기, 포환 던지기, 8백 미터 릴레이가 있었으며, 이 대회에 참가한 재봉천 조선인 상점은 한 상점 당 한 팀이 출전해 하나의 종목에 2명씩 참가했고, 선수 한 명당 2종목 이내로 출전할 수 있었다.<sup>70)</sup> 한편 개인 참가 종목으로는 만 미터 마라톤도 있었다. 씨름대회는 참가 자격으로는 조선인 남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참가 연령은 무제한이었다.<sup>71)</sup> 씨름에서 우승하면 소 한 마리를 부상으로 받았다. 이는 다른 지역의 씨름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봉천 조선체육회는 그 외에도 1935년에 전만주 축구대회를 개최했으며, 제1회 대회에서는 봉천 조선청년회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sup>72)</sup> 같은 해 5월에는 봉천 조선체육회 주관하에 제1회 전봉천 육상경기대회도 열렸다.

1940년 6월에 개최된 봉천의 운동회는 매일신보 봉천지사가 주최했으며 관중은 5만 명이었다고 전해진다.<sup>73)</sup> 이때 실시된 종목은 육상, 상점(商店) 대항, 씨름,

67) 外務省亜細亞局編, 1933, 앞의 책, 23-24쪽.

68) 1923.06.14., 「(광고) 재봉천 조선인 운동회」, 『동아일보』.

69) 1934.10.26., 「봉천체육회 경사롭게 창립」, 『동아일보』.

70) 1936.06.17., 「전만주 씨름 대회 규정과 요항」, 『동아일보』.

71) 위와 같음.

72) 1935.05.31., 「제1회 전만 축구대회」, 『조선중앙일보』.

73) 1940.06.17., 「5만관중 환호리에 봉축 운동회 성황」, 『매일신보』.

그네타기, 2만 미터 마라톤 등 5종목이었는데, 1930년대에 각각 따로 개최되어 온 운동회, 육상경기대회, 씨름대회가 봉천 운동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치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이시기 봉천 운동회의 특징 중 하나였다. 이상에서 살펴봤듯 봉천에서는 단오절을 계기로 운동회나 전통적인 민족유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 IV. 마치며

본고는 조선에서 만주로 이동해 만주 각지에서 거주했던 조선인들 즉,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재만조선인의 스포츠 활동에 관해 만주 지역 특히, 재만조선인이 많이 거주했던 간도, 안동, 봉천 지역을 중심으로 각지의 상황을 대조하면서 각 지역 재만조선인 스포츠 활동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재만조선인이 가장 많이 생활했던 지역은 현재 중국의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간도였다. 조선과 국경을 맞댄 간도에는 조선 북부에서 이주한 자들이나 한국병합 혹은 3·1독립운동 등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조선을 떠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간도내 반일적인 분위기가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조선인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운동회장에서는 제국 일본에 대한 반발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재만조선인들이 여는 운동회를 감시하기도 했다.

간도 지역에서 축구는 고국인 조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화적 결속의 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흥중학은 1926년에 고국방문 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각지를 돌면서 축구를 매개로 하여 간도와 조선간 교류를 실천했다. 그밖에 식민지기 조선에서 민족운동을 견인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중앙일보사의 여운형이 간도를 방문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간도 학생 축구전을 개최하는 등 축구를

매개로 간도 지역과 고국이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34년에 시작된 전만주 도시대항 축구대회에서 간도 대표팀이 제2회 대회부터 제4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3연패를 기록하는 등의 사실을 통해 만주 지역의 간도 축구의 경기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에서는 1913년에 조선인민회가 조직되고, 민회가 일본과의 중개 역할을 자임하는 과정에서 농업을 비롯해 각종 사업을 위한 용자를 포함하는 경제적인 의존관계를 구축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민회의 리더를 포함한 안동 지역 조선인들이 반일보다 일본과 협력관계를 쌓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동에서는 만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 일본에 의한 조선인 통치가 영향력을 갖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안동은 압록강변의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강 건너편에 위치한 조선의 신의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으로서 안동의 재만조선인과 신의주의 조선인이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 지역 거주하는 일본인과 중국인들도 운동회에 참가하고 관람하는 등 함께 운동회를 즐겼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동과 신의주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로는 압록강에서의 스케이팅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스케이팅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인물로는 이성덕이 있는데, 안동 대화소학교 출신 스케이트 선수인 이성덕은 1936년 2월에 독일의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 스케이트 종목에 일본 대표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봉천에서는 1934년에 조직된 봉천 조선체육회 주최로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특히 단오절에 열린 봉천 시민운동회는 많은 관중이 모이는 행사였다.

이상과 같이 간도, 안동, 봉천의 재만조선인 스포츠 활동을 살펴 봤는데, 재만조선인 스포츠 활동의 특징은 조선 민족이 단오절에 연중행사로서 해 왔던 민족 유희가 근대적인 가치를 갖는 운동회와 스포츠 대회로 대체되면서 한편으로, 그 안에 전통적인 문화적 연속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한편 각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

인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안동의 경우처럼 권력 쪽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조선인이 많은 지역에서의 운동회는 친목 도모의 성격이 두드러졌고, 그와 달리 간도처럼 권력 쪽에 대항하는 조선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운동회가 민족의 연대와 제국 일본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행사로서 기능하는 등, 만주 내 재만조선인의 분위기는 결코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차이도 1930년대, 1940년대가 되면 통치의 강화 및 만주국의 건국, 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점차 희미해져 간다.

본고의 한계 중 하나는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다수가 농업 종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포츠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 밝히지 못한 점이다. 관중으로서 운동회나 각종 스포츠 대회에 열광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료상 스포츠를 실천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거나 도시 노동자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농업 종사자의 모습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들은 씨름이나 그네타기 등 민족유희를 실천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차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발견되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번역: 김모란)

## 참고문헌

### 1. 자료

『東京朝日新聞』 『동아일보』 『滿日』 『매일신보』 『시대일보』 『朝鮮新聞』 『조선중앙일보』  
南滿州鐵道株式会社經濟調査会編, 1936, 『滿州勞働事情總覽』, 南滿州鐵道株式会社  
滿鐵經濟調査会編, 1936, 『滿州勞働事情總覽』  
民政部總務司調査科編, 1933, 『在滿朝鮮人事情』  
嶋田道彌, 1935, 『滿州教育史』, 文教社  
外務省亞細亞局編, 1933, 『昭和八年度在滿朝鮮人概況』  
在滿日本大使館編, 1935, 『昭和10年度在滿朝鮮人概況』  
在滿日本大使館編, 1936, 『昭和11年度在滿朝鮮人概況』

### 2. 단행본

김청운, 2019, 『연변축구 100년사』, 연변인민출판사  
富田和明, 1993, 『豆滿江に流る』, 第三書房  
西尾達雄, 2000,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学校体育政策』, 明石書店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편집부편, 1984,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변인민출판사  
李盛煥, 2019, 「国境を渡った「国家」—間島朝鮮社会」李盛煥, 木村健二, 宮本正明編『近代朝鮮  
の境界を越えた人々』, 日本經濟評論社, 2019.

### 3. 논문

廣岡淨進, 2015, 「間島における朝鮮人民会と領事館警察—在滿朝鮮人と植民地帝国日本」, 『人  
文学報』 160号,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김경춘·김영웅, 2009, 「일제강점기 간도 체육 및 스포츠 변천 과정—『간도신보』의 기사분  
석을 중심으로(1925-1937년)」, 『체육과학연구』 20권 4호  
金誠, 2020, 「帝国日本と国境のスポーツ史—安東·新義州のスポーツ交流と鴨綠江のスケ  
ート」, 『史潮』 88号  
伊藤一彦, 1992, 「日本の財滿朝鮮人政策」, 『東京女子大学比較文化研究所紀要』 53号

투고일: 2023년 09월 13일 심사완료일: 2023년 10월 09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11일

## ■ Abstract ■

## Sports Activities of the Koreans in Manchuria : Sports as a Social and Political Tool in the Korean Diaspora in Manchuria

Kim, Sung (Sapporo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sports activities among Koreans residing in regions of Manchuria in the early 20th century.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the vibrant Korean diasporic communities residing in Gando, Andong, and Bongcheon. While sports events in Gando were often imbued with residents' anti-Japanese sentiments and primarily took place in private schools attended by Koreans, Andong's unique geographic location along the Yalu River nurtured dynamic sports-based exchanges with Shinuiju, a venue that facilitated the interactions and participation of the local Japanese and Chinese communities. Alongside these regional competitions, Bongcheon eventually flourished as a central nexus for sports underpinned by the influential Bongcheon Korean Sports Association, an association that became renowned for organizing athletic meets that were synchronized with the Spring Festive. Its meets attracted substantially large audiences and served as a valuable center of sports for the Korean community.

In a nuanced exploration, this study reveals the diversity and regional uniqueness of these sports events—ranging from their role as social conduits in Andong to the symbolic platforms of resistance against Japan in Gando—a discernible trend towards homogenization was evident in the sports landscape during the 1930s and 1940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s a rich perspective on the intricate interplay between sports, politics, and ethnic identities within the Korean diaspora living in Manchuria during this period.

Key words: Korean diaspora, Koreans in Manchuria, Sports, Athletics, Cultural expression, Historical Analysis